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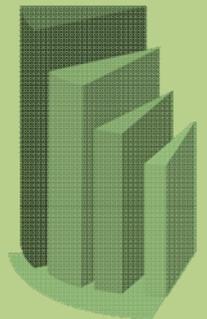
제2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06.01)에 관한

유권자의식조사

제1장. 조사 개요

제2장. 조사 결과 요약





CONTENTS

제 1 장 조사 개요

I. 조사 설계	3
II. 주요 조사 항목	4
III. 가중값 배율	5
IV. 표본의 특성	6

제 2 장 조사 결과 요약

I. 조사 결과 총괄 요약	9
II. 조사 결과 세부 요약	16

PART 1

조사 개요



제1장. 조사 개요

I 조사 설계

조사 대상

▶ 전국 17개 시·도 거주 만 18세 이상 유권자

조사 규모

▶ 총 1,505명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pm 2.5\%p$

조사 방법

▶ 컴퓨터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
(CATI, 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

표본 추출

▶ 성·연령·지역 인구에 따른 비례할당 추출

표본 프레임

▶ 무선전화 가상번호(89.9%) + 유선전화 RDD(10.1%)

응답률

▶ 14.2%(무선전화 14.5%, 유선전화 12.1%)

조사 기간

▶ 2022년 5월 22일(일) ~ 23일(월) (총 2일간)

조사 의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 기관

▶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



II 주요 조사 항목

관심도 및 투표 참여 의식

- ▶ 선거 관심도
- ▶ 투표 참여 의향
- ▶ 투표 미참여 이유
- ▶ 투표 예정일
- ▶ 사전투표 이유
- ▶ 지지후보 선택 시 고려사항

정책공약 인지도

- ▶ 후보자 정책 및 공약 인지도
- ▶ 후보자간 정책대결 선거로서의 평가 / 정책대결 선거가 되지 않는 이유
- ▶ 후보자 선택에 필요한 정보 획득 경로

정치 및 선거참여 인식

- ▶ 투표 효능감
 - 선거를 통한 국가 미래 결정
 - 선거를 통한 일상생활 및 삶의 질 결정
 - 선거에서 내 한표의 중요성

선거 분위기 및 불법선거운동

- ▶ 제8회 지방선거 공명성 평가 / 공명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이유
- ▶ 후보자들의 선거법 준수 정도
- ▶ 투표시 후보자들의 선거법 준수 여부 반영 정도
- ▶ 불법 선거운동 경험 여부
- ▶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및 제보 의향 /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하지 않는 이유

선거관리위원회 활동 평가

- ▶ 선거관리위원회 활동 평가 / 선거관리위원회 공명선거 홍보활동 평가 / 선거관리위원회 중점 홍보사항
- ▶ 선거관리위원회 역점 과제

Ⅲ 가중값 배율

구분		조사완료[A]		가중값 적용기준[B]		가중값 배율[B/A]
		사례수(명)	%	사례수(명)	%	
전체		1,505	100.0	1,505	100.0	1.00
성별	남자	750	49.8	746	49.6	0.99
	여자	755	50.2	759	50.4	1.01
연령별	18~29세	221	14.7	258	17.2	1.17
	30대	208	13.8	227	15.1	1.09
	40대	270	17.9	277	18.4	1.03
	50대	305	20.3	294	19.5	0.96
	60대	273	18.1	246	16.4	0.90
	70세 이상	228	15.1	202	13.4	0.89
지역별	서울	283	18.8	283	18.8	1.00
	인천/경기	472	31.4	476	31.6	1.01
	대전/세종/충청	160	10.6	160	10.6	1.00
	광주/전라	150	10.0	147	9.8	0.98
	대구/경북	146	9.7	147	9.8	1.01
	부산/울산/경남	229	15.2	227	15.1	0.99
	강원/제주	65	4.3	65	4.3	1.00

주) 가중값 적용 기준 사례수는 2022년 4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지역/성/연령비를 따름



IV 표본의 특성

구분		사례수(명)	%
전체		1,505	100.0
성별	남자	746	49.6
	여자	759	50.4
연령별	18~29세	258	17.2
	30대	227	15.1
	40대	277	18.4
	50대	294	19.5
	60대	246	16.4
	70세 이상	202	13.4
권역별	서울	283	18.8
	인천/경기	476	31.6
	대전/세종/충청	160	10.6
	광주/전라	147	9.8
	대구/경북	147	9.8
	부산/울산/경남	227	15.1
	강원/제주	65	4.3
학력별	중졸 이하	159	10.5
	고졸	436	29.0
	대재 이상	896	59.5
	모름/무응답	14	0.9
직업별	화이트칼라	497	33.1
	블루칼라	166	11.1
	자영업	247	16.4
	농/임/어업	33	2.2
	가정주부	299	19.9
	학생	103	6.9
	무직/기타/무응답	159	10.6
소득별	200만원 이하	267	17.7
	201-400만원 이하	390	25.9
	401-700만원 이하	386	25.7
	701만원 이상	285	18.9
	모름/무응답	176	11.7

PART 2

조사 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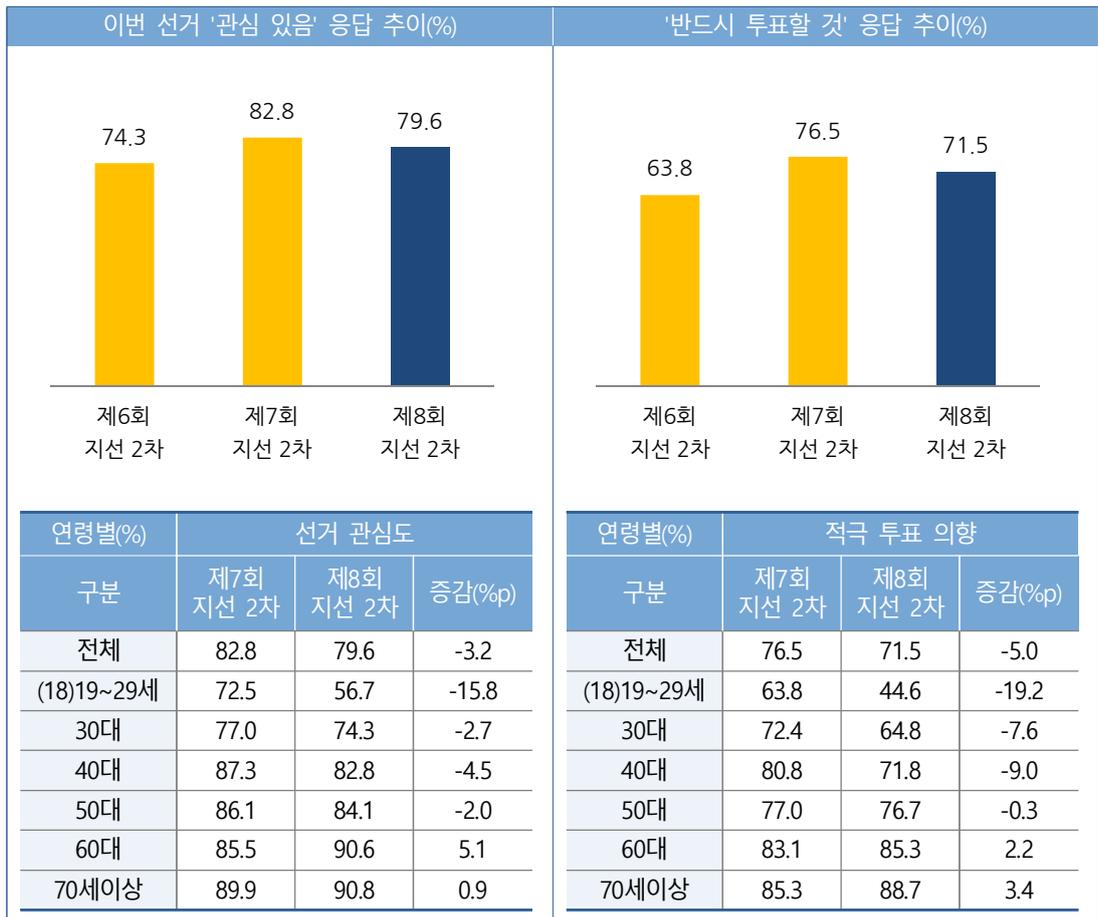
제2장. 조사 결과 요약

I 조사 결과 총괄 요약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심도 및 투표 참여 의향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심 있음' 79.6%, '반드시 투표할 것' 71.5%

→ 제7회 지선과 비교해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선거 관심도 및 적극 투표 의향이 상승하였으나, 50대 이하는 선거 관심도 및 적극 투표 의향 모두 낮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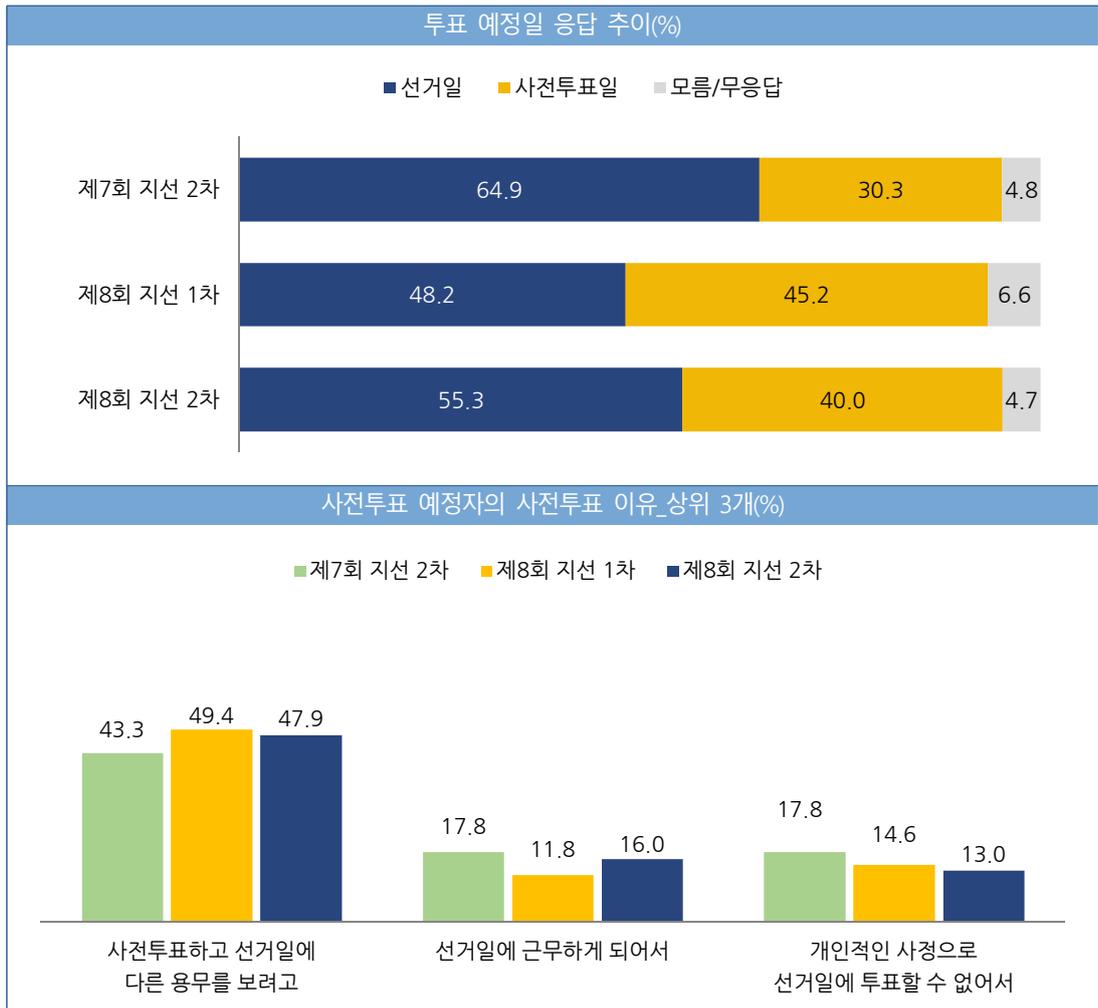


2. 투표 예정일 / 사전투표 하고자 하는 이유

● 선거일 투표 55.3%, 사전투표 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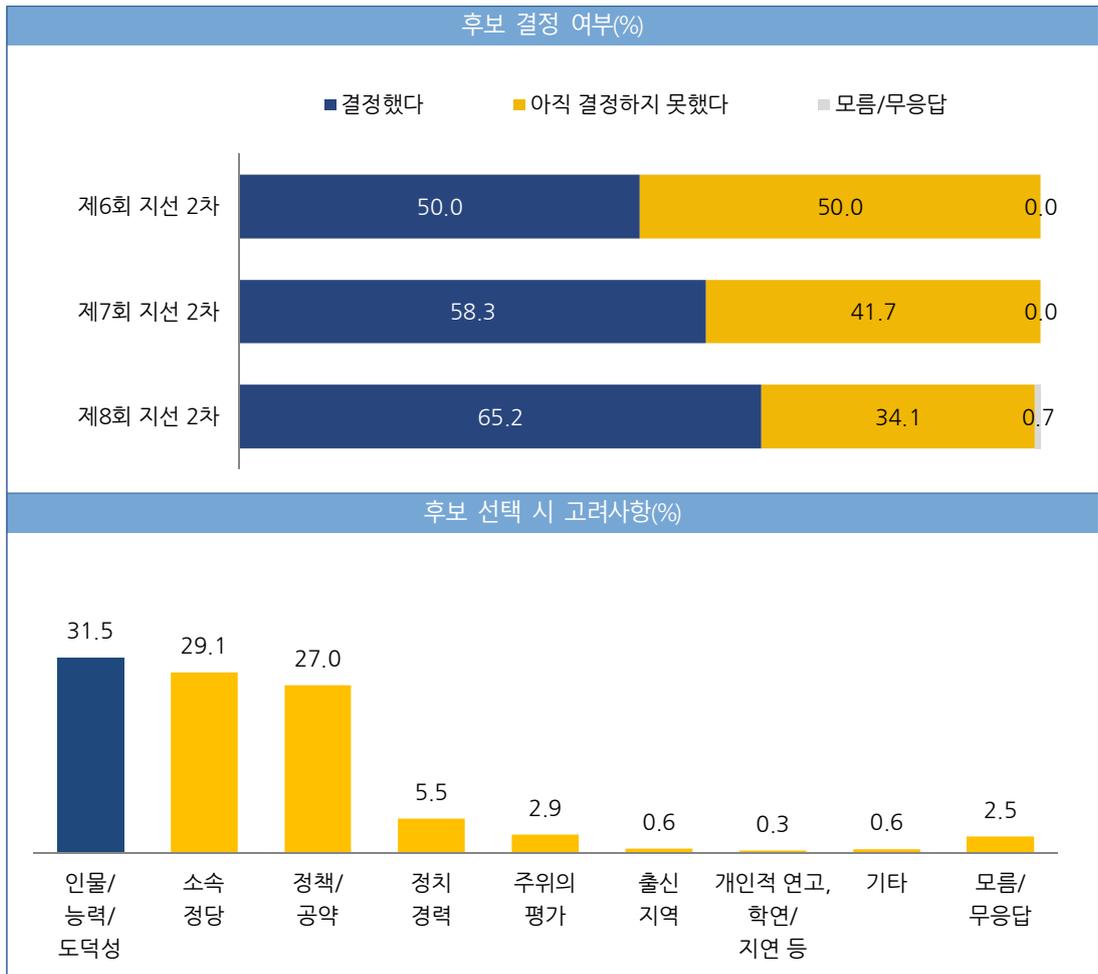
→ 사전투표 의향 제7회 지선 2차 대비 9.8%p 증가

● 사전투표 이유로는 ‘선거일에 다른 용무를 보려고’(47.9%)라는 응답이 가장 많음



3. 후보 결정 여부 / 지지후보 선택 시 고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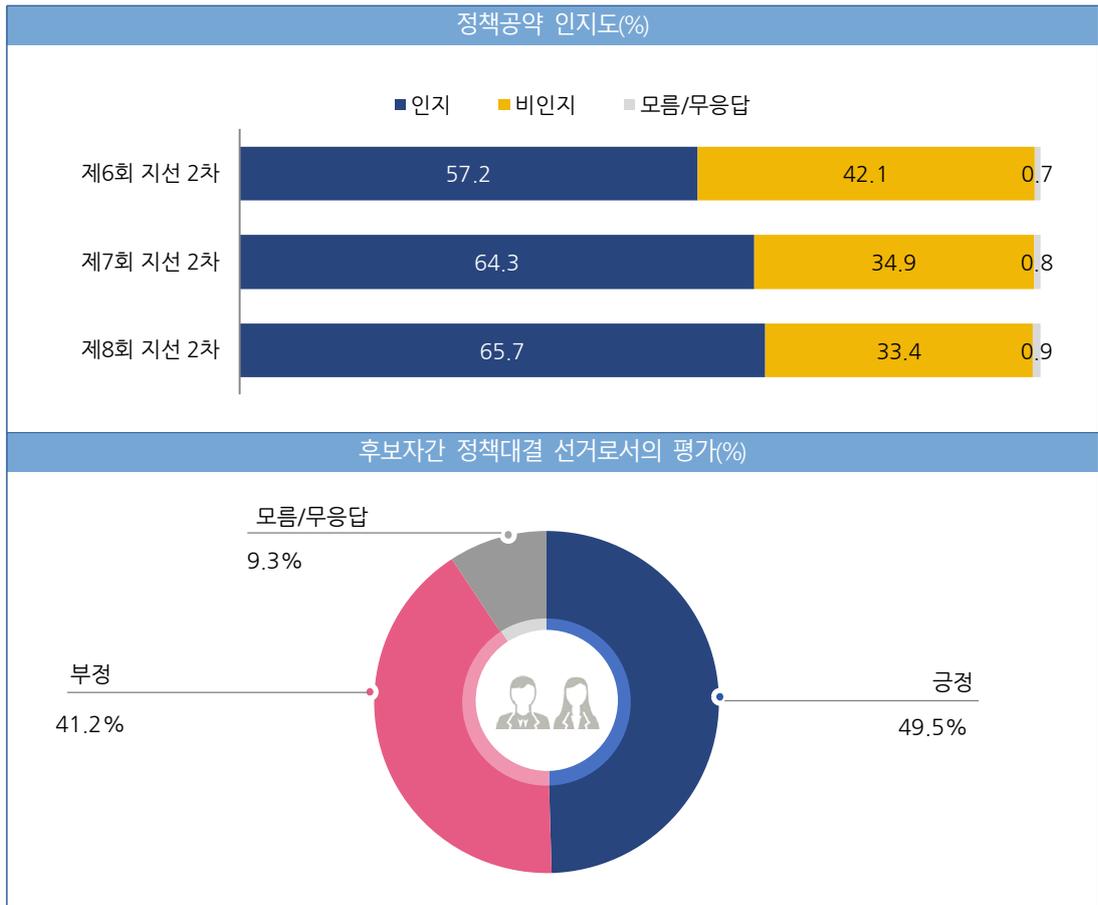
- 선거일 10일 전, 응답자의 65.2% 지지후보 결정
- 지지후보 선택 시 ‘인물·능력·도덕성’(31.5%), ‘소속 정당’(29.1%), ‘정책/공약’(27.0%)이 가장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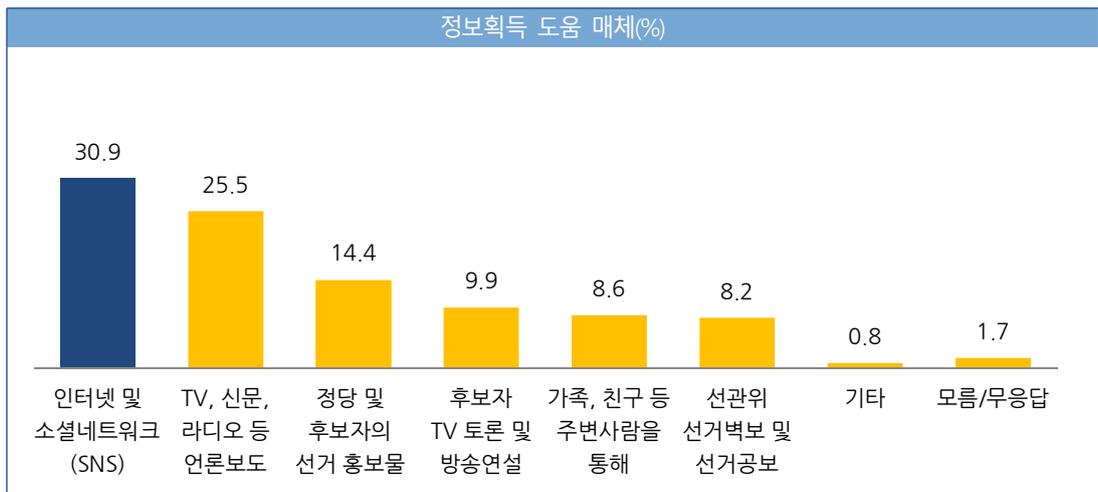
4. 정책·공약 인지도 / 정책대결 선거 평가

- 후보자 정책·공약 인지도 65.7%로, 유권자 5명 중 3명은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인지
→ 후보자 정책·공약 인지도는 제7회 지선(64.3%)과 비슷한 수준
- 이번 지선, ‘후보자간 정책대결 선거로 치러지고 있다’ 4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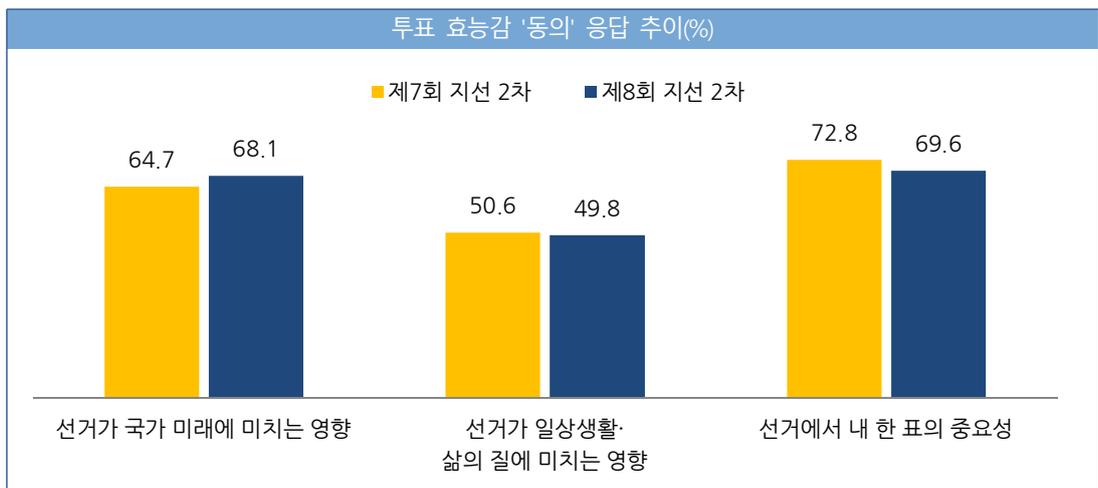
5. 지지후보 결정 정보

- 지지후보 선택에 필요한 정보는 주로 '인터넷 및 소셜네트워크(SNS)'(30.9%)와 'TV, 신문, 라디오 등 언론보도'(25.5%), '정당 및 후보자의 선거 홍보물'(14.4%) 등을 통해 획득
 - 30대 이하는 '인터넷 및 소셜네트워크(SNS)', 60대 이상은 'TV, 신문, 라디오'에서 주로 지지후보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남



6. 투표 효능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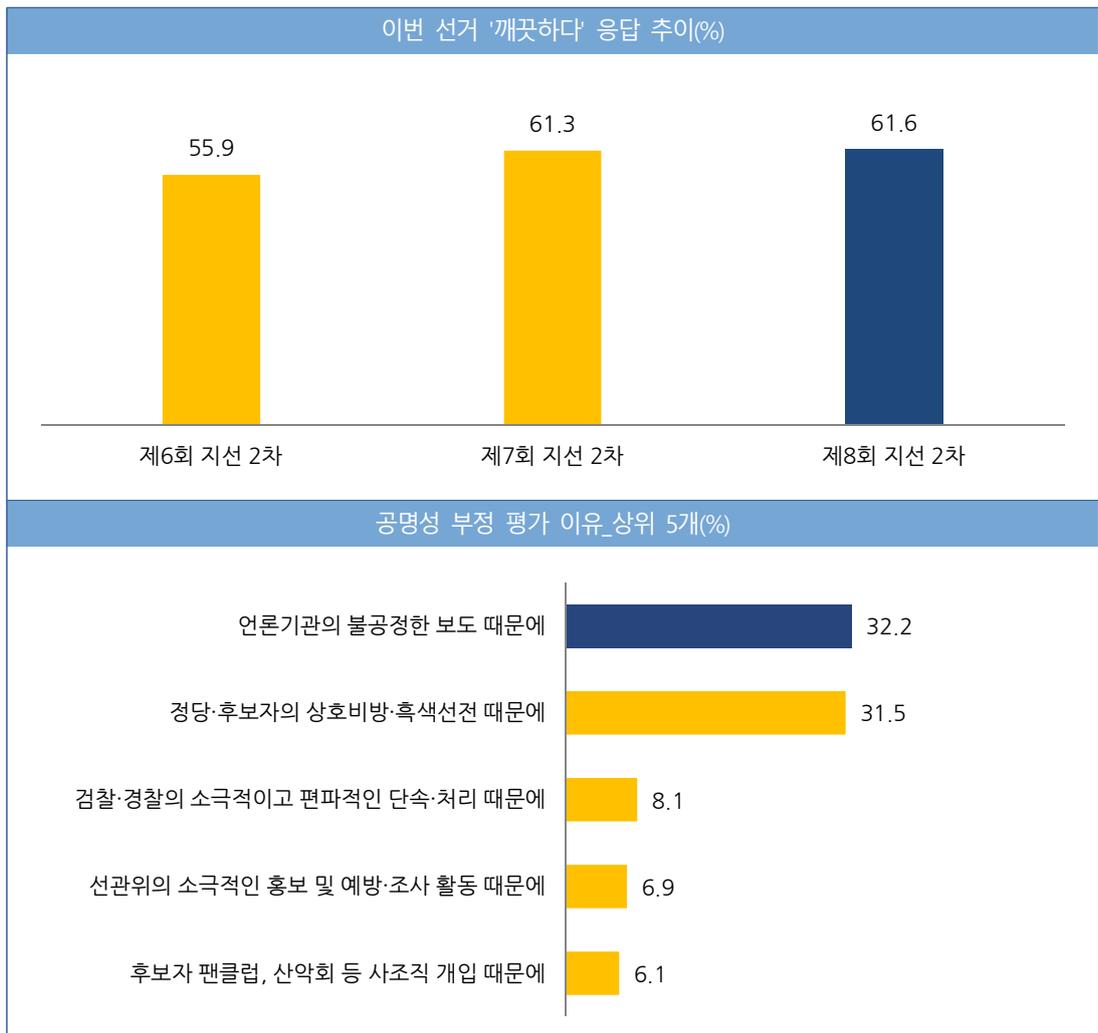
- 투표 효능감 동의율은 '선거에서 내 한 표의 중요성'(69.6%), '선거가 국가 미래에 미치는 영향'(68.1%), '선거가 일상생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49.8%) 순으로 높게 나타남





7. 선거 공명성 평가

- 제8회 지방선거 ‘깨끗하게 치러지고 있다’는 응답은 61.6%, ‘깨끗하지 못하다’는 응답은 25.4%
 - 제6회 지선 대비 5.7%p 상승, 제7회 지선(61.3%)과 비슷한 수준
- 공명성 부정 평가 이유로는 ‘언론기관의 불공정한 보도 때문에’(32.2%)와 ‘정당·후보자의 상호비방·흑색선전’(31.5%)라는 응답이 가장 많음



8. 선거관리위원회 활동 평가

- 선거관리위원회 활동·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긍정평가는 32.8%로 제7회 지선 대비 감소
- 선거관리위원회 역점 과제로는 유권자의 절반 정도가 '투표·개표 등 선거 사무의 공정한 관리'(45.6%)를 응답함



선관위 역점 과제_상위 3개(%)	제6회 지선 2차	제7회 지선 2차	제8회 지선 2차
투개표 등 선거 사무의 공정한 관리	34.7	35.0	45.6
선거 사범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조치	20.8	20.7	17.7
유권자의 투표참여 독려	14.6	18.3	13.9

주) 선관위 역점 과제_상위 3개는 제8회 지선 2차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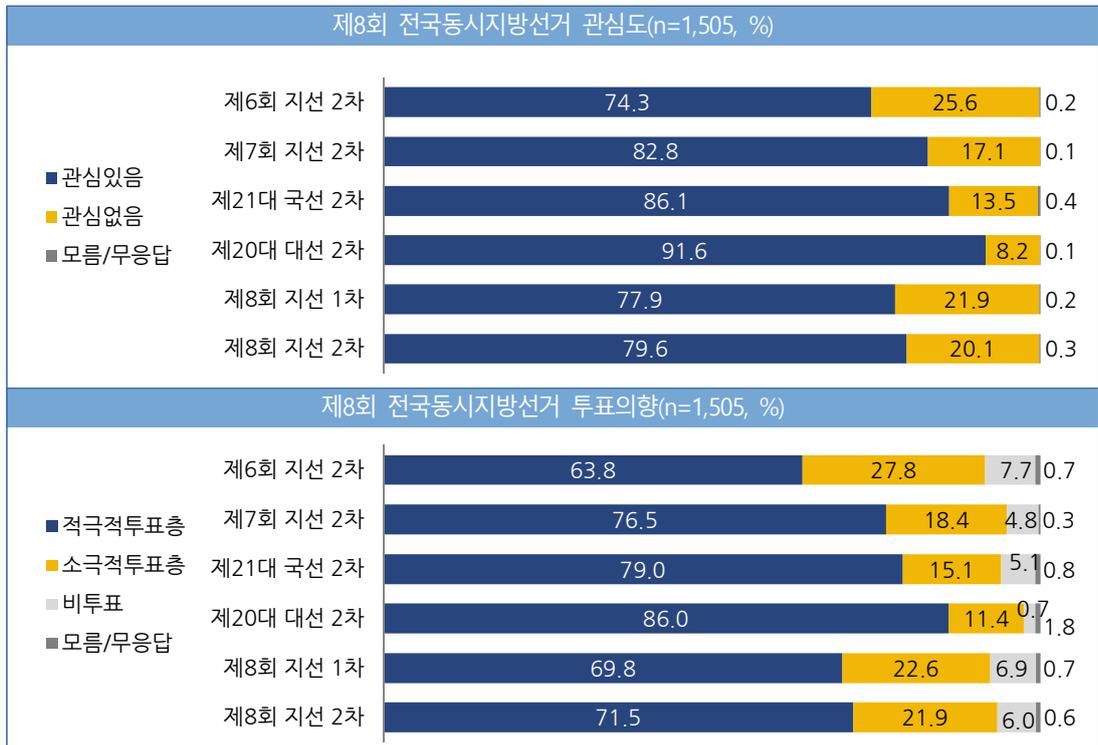


II 조사 결과 세부 요약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심도 및 투표 참여 의향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심 있음’ 79.6%, ‘반드시 투표할 것’ 71.5%
 - 제7회 지선과 비교해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선거 관심도 및 적극 투표 의향이 상승하였으나, 50대 이하는 선거 관심도 및 적극 투표 의향 모두 낮아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관심도 질문 결과, ‘매우 관심 있음’ 42.4%, ‘약간 관심 있음’ 37.3%로 유권자의 79.6%가 관심을 표명,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적극적 투표층은 71.5%로 조사됨. 관심도와 투표 의향 모두 1차 조사 대비 소폭 상승함
- 18~29세(이하 ‘20대 이하’) 연령층의 관심도와 투표의향이 1차 조사 대비 상승하였으나, 제7회 지선 2차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연령별(%)	선거 관심도						적극 투표 의향					
	제6회 지선 2차	제7회 지선 2차	제21대 국선 2차	제20대 대선 2차	제8회 지선 1차	제8회 지선 2차	제6회 지선 2차	제7회 지선 2차	제21대 국선 2차	제20대 대선 2차	제8회 지선 1차	제8회 지선 2차
전체	74.3	82.8	86.1	91.6	77.9	79.6	63.8	76.5	79.0	86.0	69.8	71.5
(18)19~29세	69.5	72.5	74.1	82.6	52.1	56.7	54.7	63.8	60.4	73.8	40.1	44.6
30대	68.2	77.0	82.2	91.6	73.2	74.3	57.0	72.4	75.6	83.6	63.0	64.8
40대	69.1	87.3	90.9	91.9	86.6	82.8	58.1	80.8	84.4	86.8	78.9	71.8
50대	76.5	86.1	87.9	95.1	80.3	84.1	68.8	77.0	80.3	89.2	72.4	76.7
60대	87.0	85.5	91.6	94.7	90.1	90.6	78.9	83.1	86.6	89.4	85.3	85.3
70세 이상		89.9	92.0	94.2	85.9	90.8		85.3	90.9	95.0	80.6	8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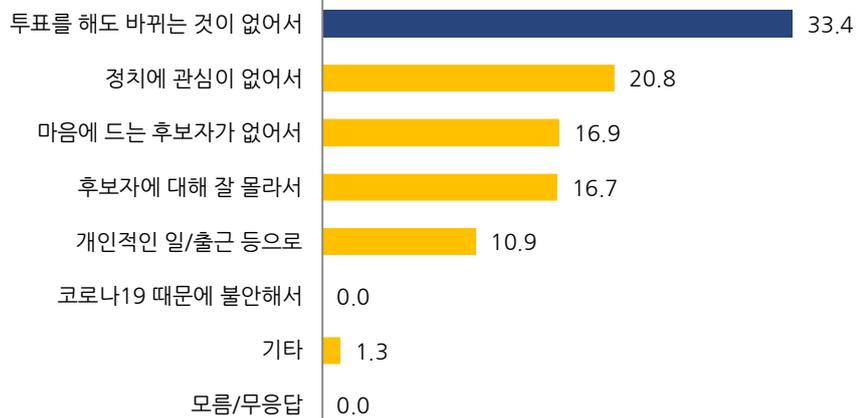
주) 제6회 지선은 60대 이상으로 조사

2. 투표 참여 의향 없는 이유

- 투표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가 33.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투표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3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20.8%), '마음에 드는 후보자가 없어서'(16.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라는 응답은 제7회 지선 2차 대비 낮게 나타난 반면,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20.8%), '마음에 드는 후보자가 없어서'(16.9%)라는 응답은 제7회 지선 2차 대비 높게 나타남

투표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비투표 의사층, %)



역대 선거 "비투표" 이유(%)	제6회 지선 2차	제7회 지선2차	제21대 국선2차	제20대 대선2차	제8회 지선 1차	제8회 지선 2차
	(n=116)	(n=72)	(n=76)	(n=27)	(n=105)	(n=90)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	56.7	41.9	35.1	14.4	29.2	33.4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10.9	18.8	19.8	25.8	21.8	20.8
마음에 드는 후보자가 없어서	5.6	15.1	15.9	47.8	16.2	16.9
후보자에 대해 잘 몰라서	16.7	6.6	3.7	0.0	11.5	16.7
개인적인 일/출근 등으로	4.3	12.0	1.4	4.9	17.6	10.9
코로나19 때문에 불안해서	-	-	19.9	0.0	0.0	0.0
기타	5.2	5.6	4.2	7.1	1.8	1.3
모름/무응답	0.7	-	1.7	0.0	1.9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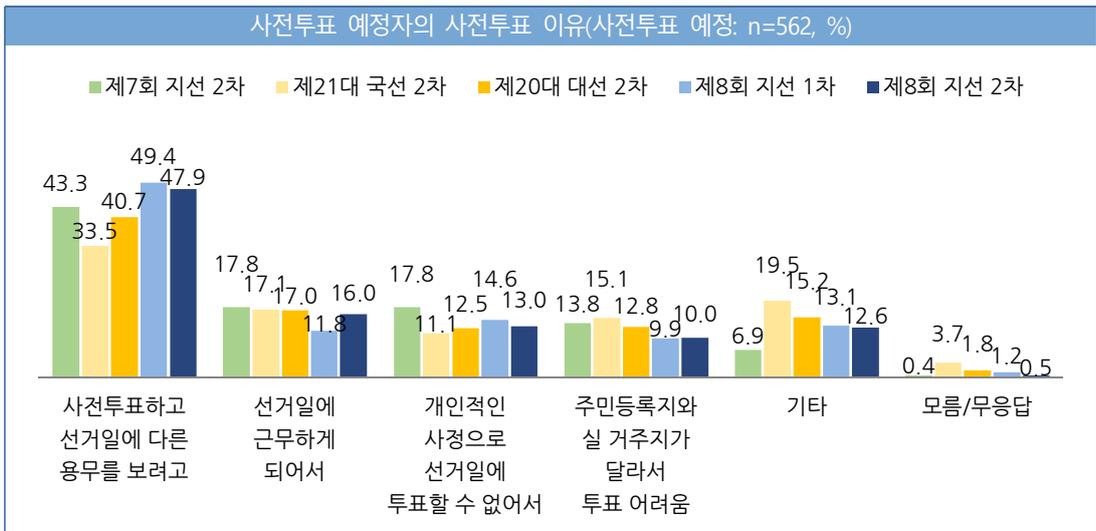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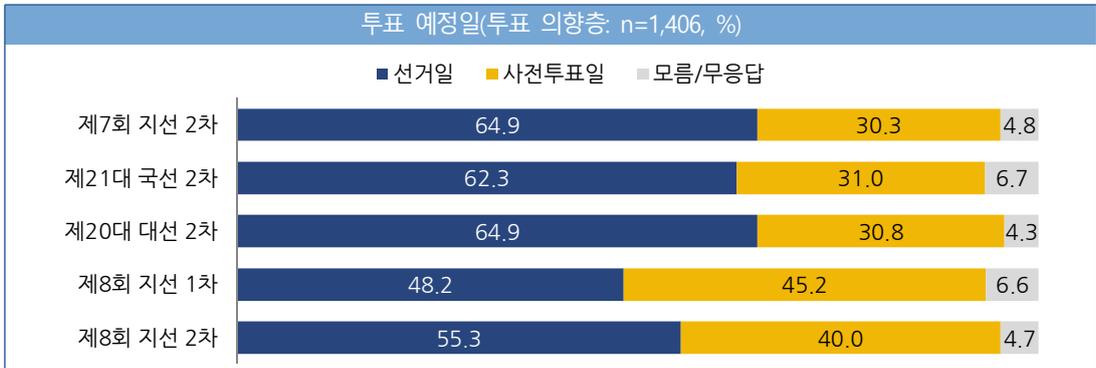


3. 투표 예정일 / 사전투표 하고자 하는 이유

● 사전투표 의향 40.0%로 제7회 지선 대비 9.7%p 증가, 제8회 지선 1차 조사 대비 5.2%p 감소

→ 사전투표 이유로는 '선거일에 다른 용무를 보려고'(47.9%)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제7회 지선 때부터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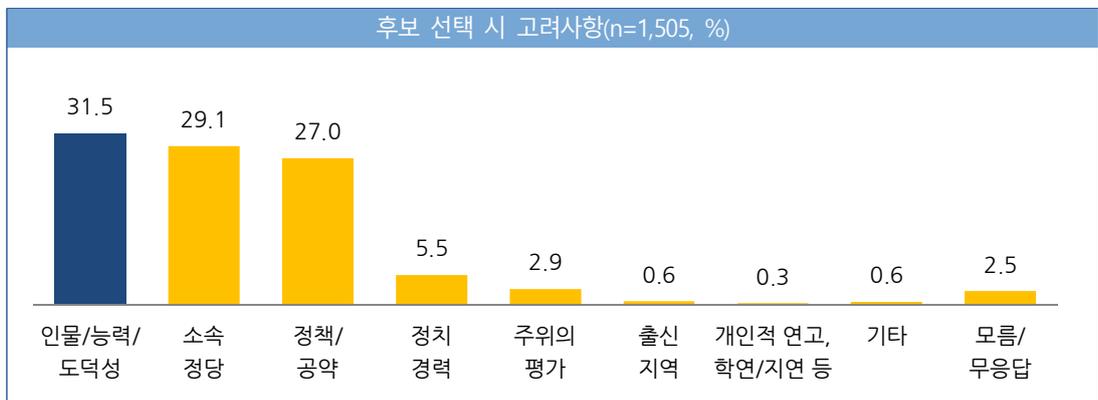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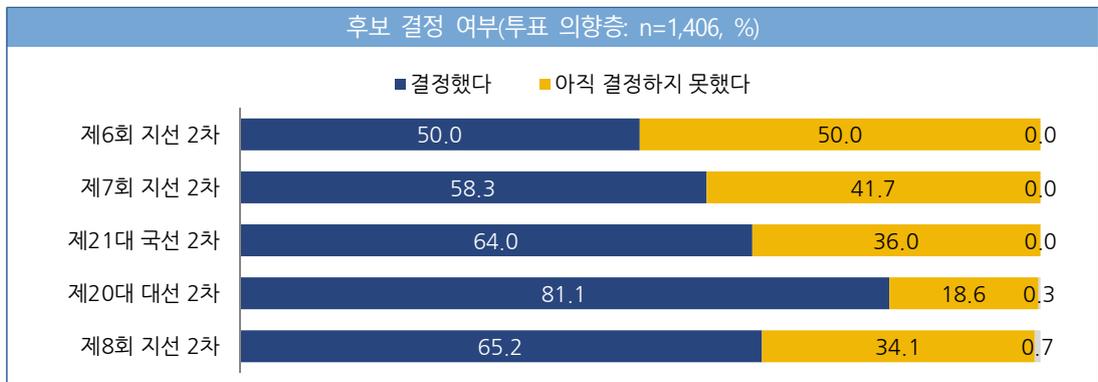
- 투표의향자의 55.3%는 '6월 1일'에 투표하겠다, 40.0%는 '5월 27일 또는 28일'에 투표하겠다고 응답함
- 사전투표 참여의향은 제8회 지선 1차(45.2%)보다 감소하였으나, 제7회 지선 및 제20대 대선보다 증가함
- 사전투표 이유로는 '선거일에 다른 용무를 보려고'가 47.9%로 제7회 지선(43.3%)보다 높게 나타남



4. 후보 결정 여부 / 지지후보 선택 시 고려사항

- 선거일 10일 전, 응답자의 65.2% 지지후보 결정
 - 투표할 후보를 결정했다는 응답은 제7회 지선 대비 증가
- 지지후보 선택 시 ‘인물·능력·도덕성’(31.5%), ‘소속 정당’(29.1%), ‘정책/공약’(27.0%)이 가장 중요

· 이번 선거 지지후보 선택 시 가장 많이 고려하는 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인물·능력·도덕성’(31.5%), ‘소속 정당’(29.1%) 및 ‘정책·공약’(27.0%)이 높게 나타난 반면, ‘정치경력’(5.5%), ‘주위의 평가’(2.9%) 등은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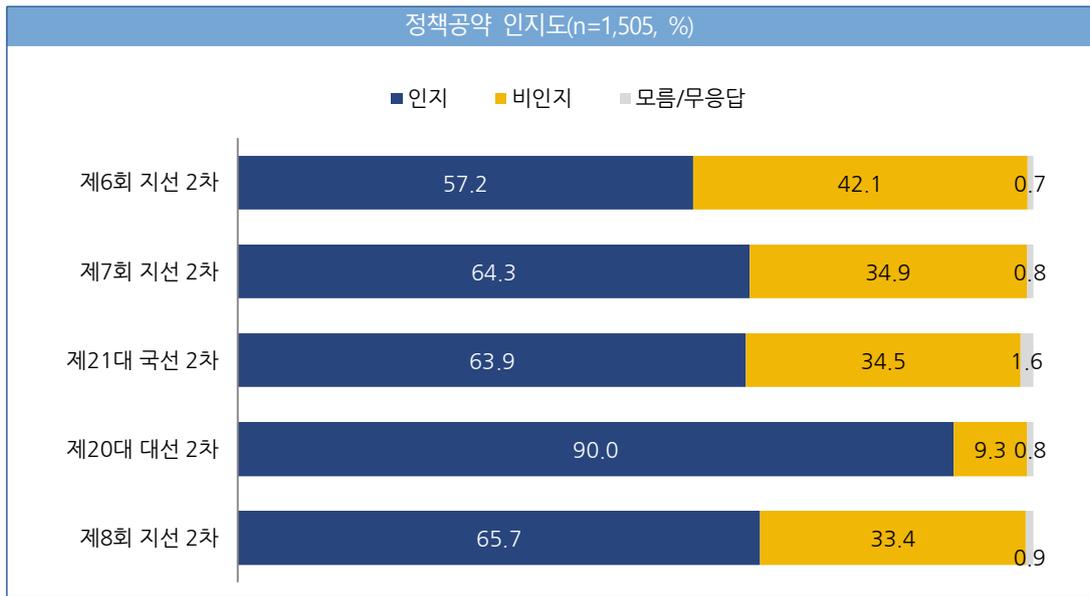


후보 선택 기준(%)	인물/능력/도덕성	소속 정당	정책/공약	정치경력	주위의 평가	출신 지역	개인적 연고, 학연/지연 등	기타	모름/무응답
제5회 지선 2차	30.0	15.2	32.8	5.8	7.3	0.6	0.8	1.6	5.9
제6회 지선 2차	31.0	15.6	40.4	3.9	4.1	0.8	0.4	0.8	3.0
제7회 지선 2차	33.7	23.6	31.0	4.3	3.6	0.5	0.6	0.7	2.0
제8회 지선 1차	33.8	24.8	30.3	4.4	2.4	0.5	0.9	0.3	2.6
제8회 지선 2차	31.5	29.1	27.0	5.5	2.9	0.6	0.3	0.6	2.5



5. 정책·공약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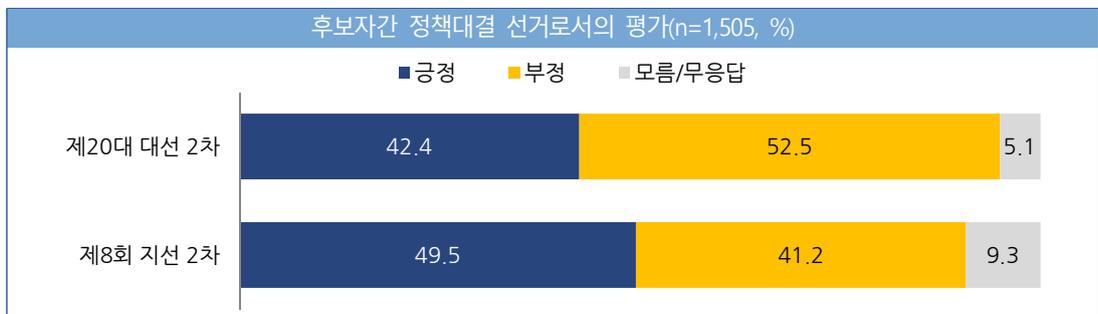
- 후보자 정책·공약 인지도 65.7%로, 유권자 10명 중 6명 이상은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인지
 - 후보자 정책·공약 인지도는 제7회 지선(64.3%)과 비슷한 수준
 - 정책·공약 인지도는 연령이 낮을수록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18~29세(이하 '20대 이하')에서 45.6%로 타 세대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남



정책공약 인지도(%)	인지	비인지	모름/무응답
전체	65.7	33.4	0.9
만18-29세	45.6	54.4	0.0
30대	55.8	43.7	0.5
40대	68.1	30.8	1.1
50대	74.1	25.5	0.4
60대	74.2	25.4	0.4
70세 이상	76.4	19.7	3.9

6. 후보자간 정책대결 선거로서의 평가

- 이번 대선, '후보자간 정책대결 선거로 치러지고 있다' 49.5%(매우 그렇다 11.8% + 그런 편이다 37.7%)
 - '정책대결 선거로 치러지고 있다'는 응답은 제20대 대선 대비 7.1%p 상승
- 정책대결로 치러지지 않는 이유로는 '정책보다는 상호 비방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34.0%), '표와 인기를 의식한 정책들을 남발하고 있어서'(26.2%)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정책을 논할 기회가 없어서' 라는 응답은 14.6%로 제20대 대선 대비 5.5%p 높게 나타남



정책대결 선거가 되지 않는 이유 (부정평가자: n=620, %)	제20대 대선2차	제8회 지선 2차
	(n=799)	(n=620)
정책보다는 상호비방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57.9	34.0
표와 인기를 의식한 정책들을 남발하고 있어서	22.7	26.2
정책을 논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9.1	14.6
흥미를 끌만한 정책이 없어서	3.7	9.2
지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낮아서 ^{주)}	2.1	6.4
기타	1.6	5.5
모름/무응답	2.8	4.1

주) 제20대 대선 2차에서는 '대선 자체에 국민들의 관심이 낮아서' 라고 질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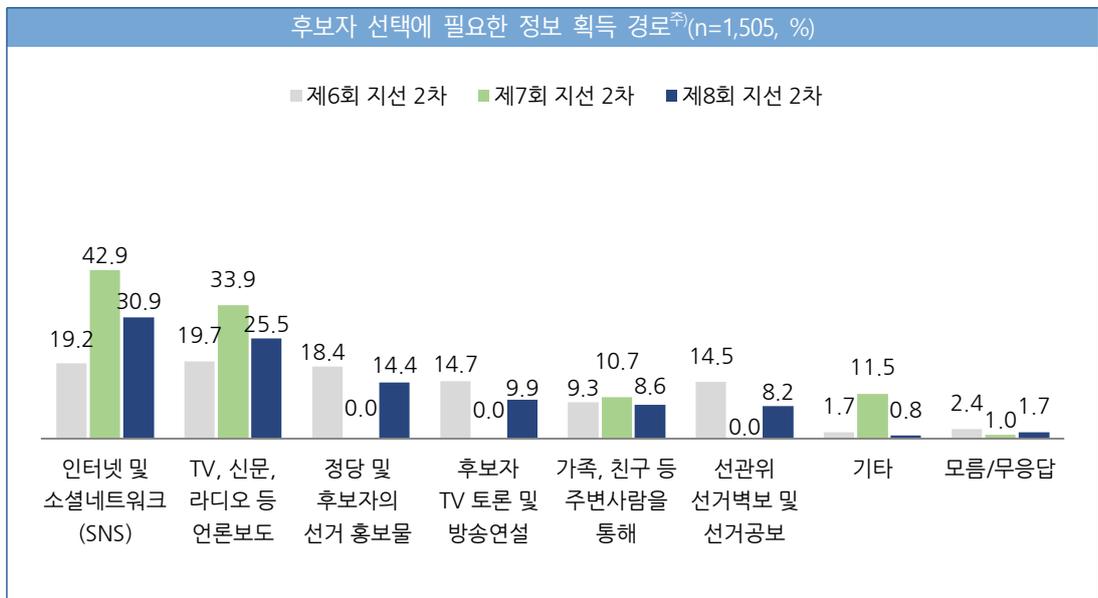


7. 후보자 선택에 필요한 정보 획득 경로

● 지지후보 선택에 필요한 정보는 주로 '인터넷 및 소셜네트워크(SNS)'(30.9%)와 'TV, 신문, 라디오 등 언론보도'(25.5%), '정당 및 후보자의 선거 홍보물'(14.4%)을 통해 획득

→ '인터넷 및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지지후보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다는 응답은 제6회 지선 대비 11.7%p 증가, 제7회 지선 대비 12.0%p 하락

· 30대 이하는 '인터넷 및 소셜네트워크(SNS)', 60대 이상은 'TV, 신문, 라디오'에서 주로 지지후보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남



주) 제7회 지선 2차에서는 'TV, 신문, 라디오 등 언론보도' 값은 'TV', '신문', '라디오' 응답을, '인터넷 및 소셜네트워크' 값은 '포털·홈페이지 등 인터넷', 'SNS' 응답을 합산한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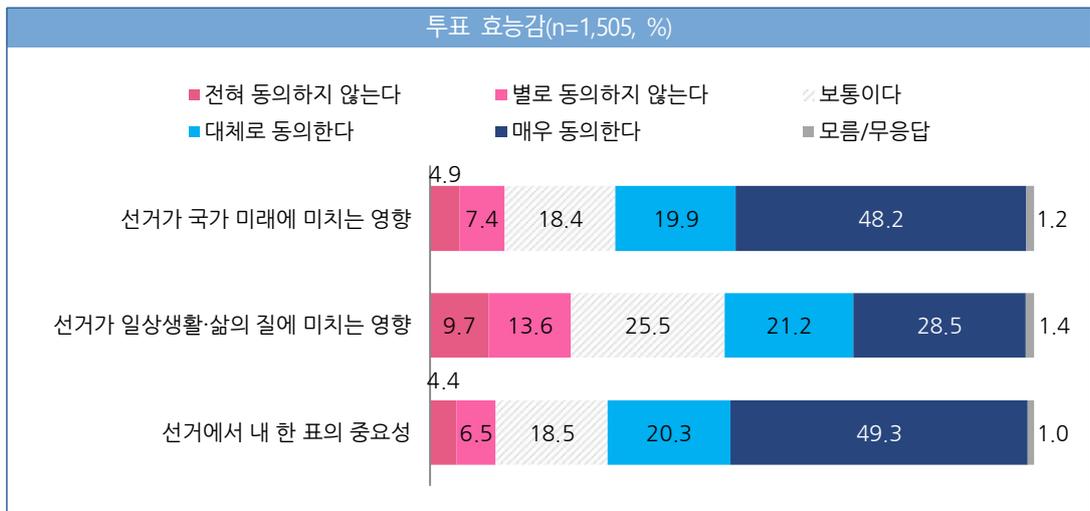
후보자 선택에 필요한 정보 획득 경로(%)	인터넷 및 소셜네트워크(SNS)	TV, 신문, 라디오 등 언론보도	정당 및 후보자의 선거 홍보물	후보자 TV 토론 및 방송연설	가족, 친구 등 주변사람을 통해	선관위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	기타	모름/무응답
전체	30.9	25.5	14.4	9.9	8.6	8.2	0.8	1.7
만18-29세	45.9	12.0	9.9	3.2	11.4	14.9	1.3	1.3
30대	44.0	12.7	19.7	3.9	5.4	13.4	0.5	0.4
40대	37.2	20.3	18.0	10.1	4.7	7.3	0.3	2.1
50대	27.8	29.3	17.3	8.1	10.2	3.9	1.8	1.7
60대	18.0	37.9	11.9	16.4	8.1	5.7	0.4	1.5
70세 이상	8.3	43.8	8.0	19.3	12.2	4.7	0.5	3.2

8. 투표 효능감

- 투표 효능감 동의율은 '선거에서 내 한 표의 중요성'(69.6%), '선거가 국가 미래에 미치는 영향'(68.1%), '선거가 일상생활·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49.8%)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투표 효능감 동의율은 '선거가 국가 미래에 미치는 영향'는 68.1%로 직전 제7회 지선 대비 상승하였으나, '선거가 일상생활·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및 '선거에서 내 한 표의 중요성'은 소폭 하락함

- 투표 효능감 동의율은 '선거에서 내 한 표의 중요성', '선거가 국가 미래에 미치는 영향'의 동의 비율은 약 70%로, 투표 행위의 중요성에 대해 높은 효능감을 보임
- '선거가 일상생활·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동의 비율은 49.8%로 제7회 지선과 비슷한 수준으로, 타 항목 대비 낮게 나타남



투표 효능감 '동의' (%)	제7회 지선 2차	제21대 국선 2차	제20대 대선2차	제8회 지선 1차	제8회 지선 2차	증감(%) ^{주)}
선거가 국가 미래에 미치는 영향	64.7	73.6	78.8	68.2	68.1	3.4
선거가 일상생활·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50.6	56.0	58.5	48.2	49.8	-0.8
선거에서 내 한 표의 중요성	72.8	75.7	77.9	70.9	69.6	-3.2

주) 증감폭은 제8회 지선 2차 데이터와 제7회 지선 2차 데이터를 비교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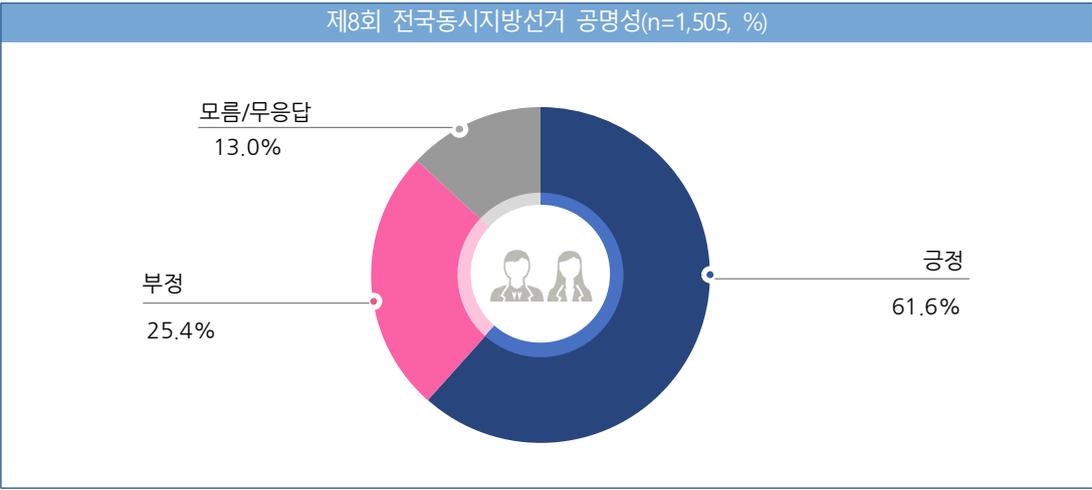
9.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명성 평가 / 공명성 부정 평가 이유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깨끗하게 치러지고 있다’ 61.6%, ‘깨끗하지 못하다’ 25.4%
 - 공명성 긍정 평가, 제6회 지선 대비 5.7%p 상승, 제7회 지선과 비슷한 수준
- 공명성 부정평가 이유로는 ‘불공정 보도’(32.2%), ‘정당·후보자의 상호비방·흑색선전’(31.5%)
 - 지난 제7회 지선 대비 ‘정당·후보자의 상호비방·흑색선전’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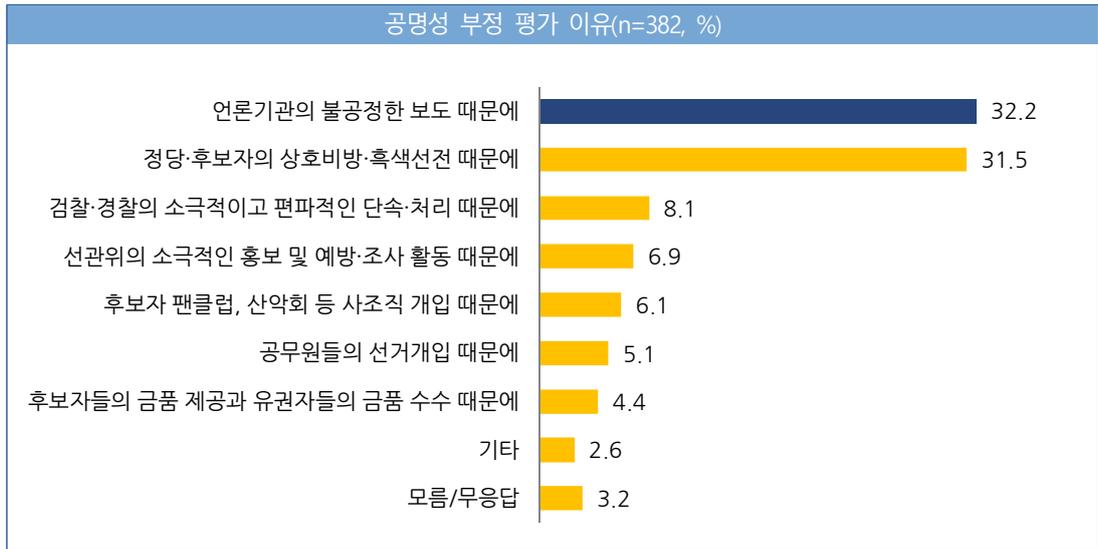
·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명한 정도에 대해서는 ‘매우 깨끗하게 치러지고 있다’ 7.1%, ‘깨끗하게 치러지는 편이다’ 54.5% 등 유권자의 절반 이상(61.6%)이 공명성에 대해 긍정 평가해 부정 평가(25.4%)보다 36.2%p 더 많음. 공명성 긍정평가는 직전 선거인 제20대 대선보다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공명성 긍정 평가는 40대와 6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60% 이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음

· 이번 지방선거가 깨끗하게 치러지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언론의 불공정한 보도’(32.2%)와 ‘정당·후보자의 상호비방·흑색선전’(31.5%)에 응답 집중되었으나, 제7회 지선과 비교해 ‘정당·후보자의 상호비방·흑색선전’ 응답은 14.1%p 감소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명성(%)	긍정	부정	모름/무응답
전체	61.6	25.4	13.0
만18-29세	71.1	15.6	13.3
30대	63.0	28.0	9.1
40대	53.4	32.7	13.8
50대	60.1	28.6	11.3
60대	59.0	28.8	12.1
70세 이상	64.3	16.1	19.6



공명성 평가(%)	선거 공명성		공명성 부정 평가 이유_상위 3개 ^{주)}		
	공명함	공명하지 못함	언론기관의 불공정한 보도 때문에	정당·후보자의 상호비방·흑색선전 때문에	검찰·경찰의 소극적이고 편파적인 단속·처리 때문에
제6회 지선 2차	55.9	25.5	23.6	40.0	6.8
제7회 지선 2차	61.3	23.7	24.3	45.6	6.1
제21대 국선 2차	55.8	26.8	31.9	29.0	5.9
제20대 대선 2차	37.9	54.5	29.0	42.7	9.2
제8회 지선 1차	58.7	26.0	30.6	21.2	8.9
제8회 지선 2차	61.6	25.4	32.2	31.5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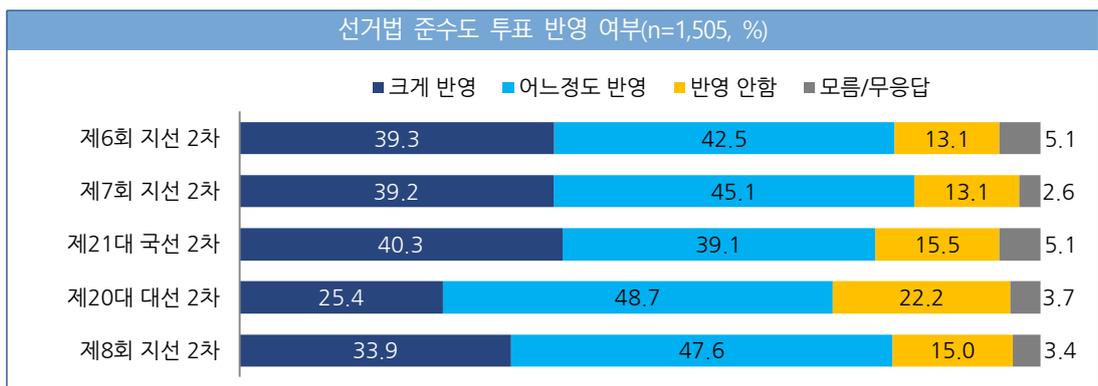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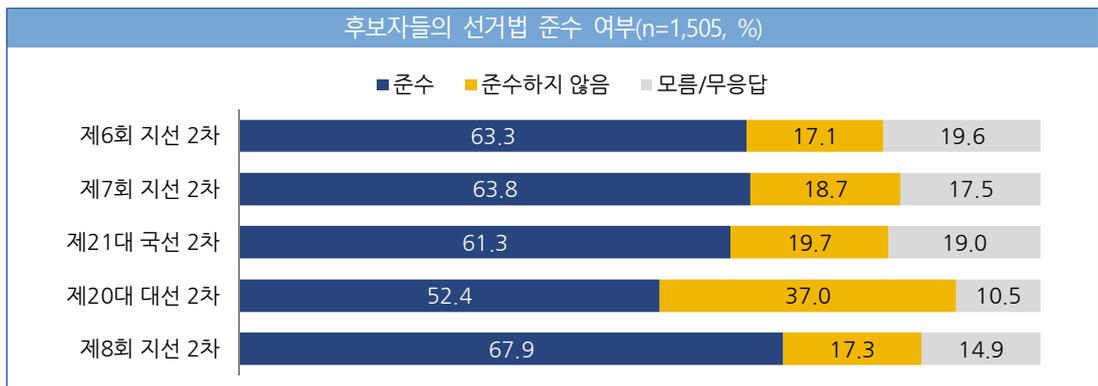
주) 공명성 부정 평가 이유_상위 3개는 제8회 지선 2차 기준임



10. 후보자의 선거법 준수 여부 / 투표 시 후보자의 선거법 준수 반영 여부

- 후보자들이 선거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유권자는 67.9%
- 유권자 10명 중 8명 이상(81.5%)은 후보자들의 선거법 준수 여부를 지지후보 결정 시 반영
 - 제7회 지선 대비, 후보자 '선거법 준수'에 대한 인식은 4.1%p 증가하였으나 선거법 준수 여부 지지후보 결정 시 반영하겠다는 응답은 2.8%p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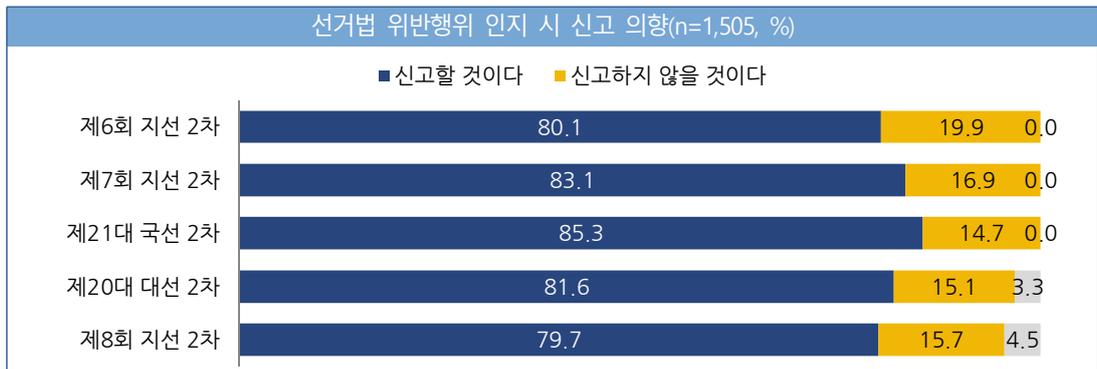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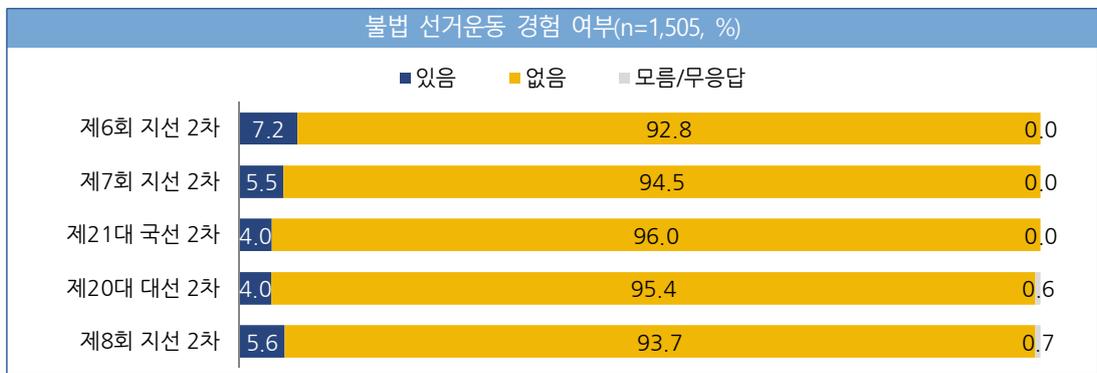
- 후보자의 선거법 준수 여부에 대해 '잘 지키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67.9%(매우 잘 지키고 있다 5.3% + 잘 지키는 편이다 62.5%)로 부정적 평가(17.3%)보다 높았음
- 한편,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의 선거법 준수 여부를 '반영하겠다'는 응답은 81.5%(크게 반영할 것이다 33.9% +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이다 47.6%)로 '반영하지 않겠다'(15.0%)는 응답보다 높았음



11. 불법 선거운동 경험 여부 /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의향 / 미신고 이유

- 불법 선거운동 경험 또는 들어봤다 5.6%
- 유권자의 약 80%는 '선거법 위반 행위 인지 시 신고하겠다'고 응답
 - 불법 선거운동(금품향응 등) 경험 여부 및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의향은 지난 대선 및 지선, 국선 대비 비슷한 수준
- 선거법 위반행위 미신고 이유로는 '신고가 번거롭고 귀찮아서' 라는 응답이 3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신고를 하든 안 하든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25.3%), '신고를 해도 즉각적인 조치가 없기 때문에'(11.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신고가 번거롭게 귀찮아서' 라는 응답은 제6회 지선 이후 처음으로 미신고 이유로 가장 많이 응답됨



선거법 위반행위 미신고 이유(%)	제6회 지선 2차	제7회 지선 2차	제21대 국선 2차	제20대 대선 2차	제8회 지선 2차
	(n=298)	(n=253)	(n=220)	(n=230)	(n=237)
신고가 번거롭고 귀찮아서	23.9	27.4	23.1	24.6	36.3
신고를 하든 안하든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32.6	31.8	31.8	44.7	25.3
신고를 해도 즉각적인 조치가 없기 때문에	11.9	13.1	12.7	10.8	11.9
신원이 노출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9	14.3	9.6	6.5	11.0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되므로	9.3	8.4	6.5	7.4	8.8
기타	5.4	2.4	10.2	2.5	3.6
모름/무응답	6.0	2.6	6.2	3.3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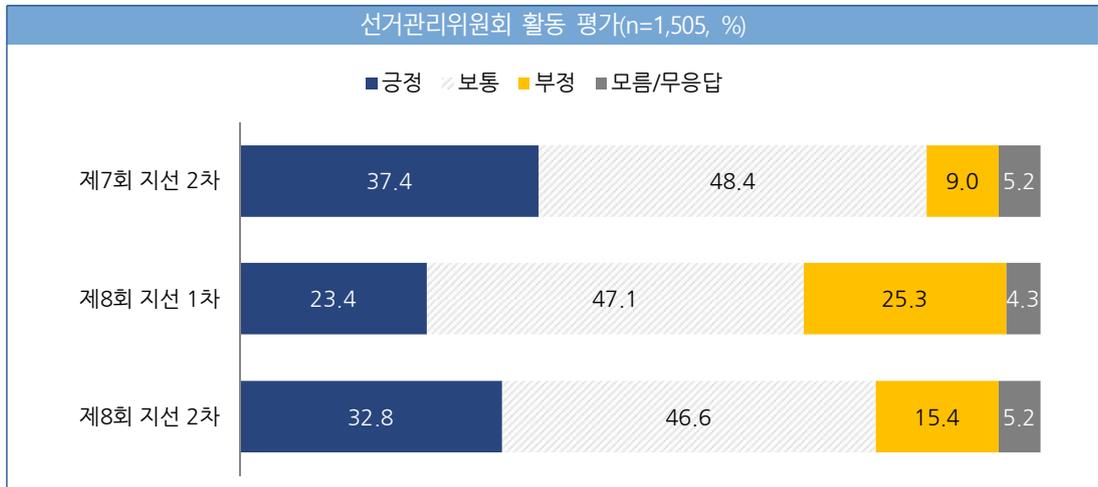
12. 선거관리위원회 활동 평가

●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 및 정치적 중립성 유지와 직무수행 공정성에 대한 긍정평가 32.8%

→ 제8회 지선 1차 조사 대비 9.4%p 상승, 제7회 지선 2차 대비 다소 낮음

→ 이번 지방선거에 관심이 있는 유권자는 선거관리위원회 활동 긍정평가가 35.1%로 관심이 없는 유권자(23.6%)보다 높았음

·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 및 정치적 중립성 유지와 직무수행 공정성에 대해 ‘매우 잘하고 있다’ 4.7%, ‘잘하고 있는 편이다’ 28.1% 등 긍정평가가 32.8%로 부정평가(15.4%)보다 높게 나타남. 선거 관심 있는 층에서 선거관리위원회 활동에 대한 긍·부정 평가가 선거 관심 없는 층에 비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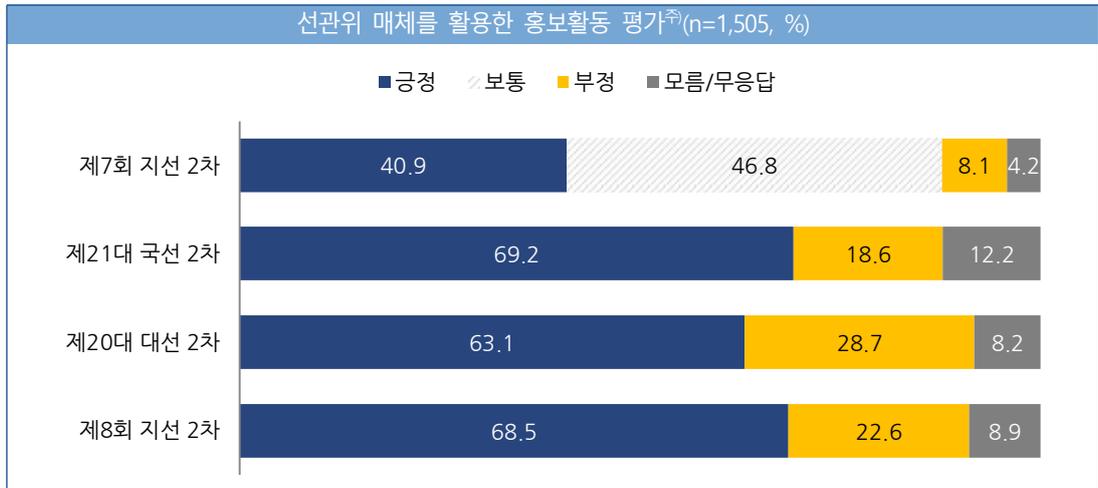


선거관리위원회 활동 평가(%)	잘하고 있다	보통	잘 못하고 있다	모름/무응답
전체	32.8	46.6	15.4	5.2
선거 관심 있는 층	35.1	44.4	16.0	4.4
선거 관심 없는 층	23.6	55.2	12.8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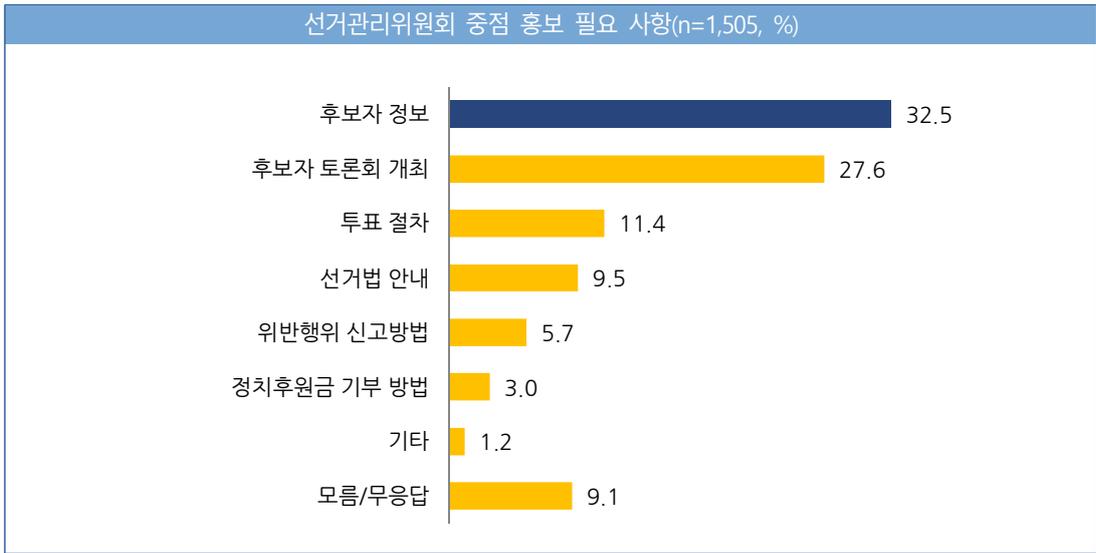
13. 선거관리위원회 홍보활동 평가 / 중점 홍보 필요사항

- 선거관리위원회의 매체 활용 홍보활동, '잘하고 있다' 68.5%
- 선거관리위원회의 중점 홍보 필요사항은 '후보자 정보'(32.5%) 및 '후보자 토론회 개최'(27.6%)

· 선거관리위원회가 TV·라디오광고, 현수막, 포스터, 버스광고,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실시하는 공명선거 홍보활동에 대한 긍정평가(68.5%)가 부정평가(22.6%)보다 높게 나타남



주) 제7회 지선2차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활동' 문항 척도가 5점 척도로, 비교 시 주의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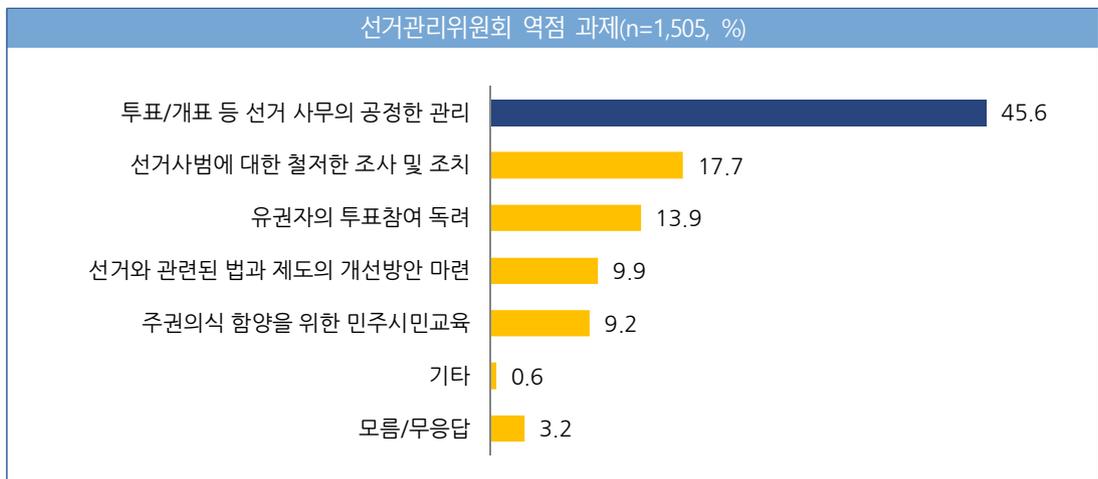
선거관리위원회 중점 홍보 필요 사항(%)	제7회 지선2차	제21대 국선2차	제20대 대선2차	제8회 지선 2차
후보자 정보	29.8	32.7	32.6	32.5
후보자 토론회 개최	30.4	29.3	31.7	27.6
투표 절차	7.7	11.2	9.3	11.4
선거법 안내	11.1	9.5	8.1	9.5
위반행위 신고방법	8.5	4.9	4.6	5.7
정치후원금 기부 방법	2.1	2.3	2.2	3.0
기타	1.2	0.7	1.4	1.2
모름/무응답	9.2	9.6	10.1	9.1

14. 선거관리위원회 역점 과제

● 선거관리위원회 역점 과제로 '투표·개표 등 선거 사무의 공정한 관리'(45.6%)라는 응답이 가장 높음

→ 모든 세대/계층에서 '선거 사무의 공정한 관리'를 1순위로 응답함

- 선거관리위원회가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으로는 '투표·개표 등 선거 사무의 공정한 관리'가 45.6%로 가장 높았으며, '선거사범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조치' 17.7%, '유권자의 투표참여 독려' 13.9%, '선거와 관련된 법과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 9.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선거 사무의 공정한 관리'는 제6회 지선 시부터 계속하여 1순위로 응답됨. 반면 제7회 지선 대비 '선거 사범 조사/조치'와 '투표 참여 독려'는 응답 감소함



선거관리위원회 역점 과제(%)	제6회 지선 2차	제7회 지선2차	제21대 국선2차	제20대 대선2차	제8회 지선 1차	제8회 지선 2차
투·개표 등 선거 사무의 공정한 관리	34.7	35.0	38.2	51.5	55.1	45.6
선거 사범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조치	20.8	20.7	17.5	13.6	14.8	17.7
유권자의 투표참여 독려	14.6	18.3	15.7	14.2	7.8	13.9
선거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9.5	12.3	12.9	8.1	10.5	9.9
주권의식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 교육	-	9.8	10.0	8.8	6.8	9.2
후보자들의 정책에 대한 홍보	13.9	-	-	-	-	-
기타	0.3	0.4	0.6	0.5	0.2	0.6
모름/무응답	6.2	3.5	5.2	3.2	4.7	3.2